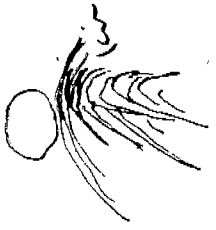
새 時代를 向한 看護의 実現方案



李 永 福
〈이대간호대학장, 본회이사〉

大韓看護協會의 創立 50주년을 紀念하는 이 시점에서 "새 時代"라고 하면 다음 50년을 뜻함이 妥當할 듯 하다. 그러나 오늘의 1년은 그 변화과정이나 속도가 옛날의 10년에 該當되는 느낌이므로 내 이야기의 새 時代는 닥아오는 5년 내지 10년을 가르키는 말이 되겠다.

또한 實現方案이라는 具體的이고도 대담한 표현을 썼지만 나는 주어진 이 제목 아래서 다만 個人的인 소신을 피력코저 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오늘날 國家社會를 위한 專門職看護의 실현이란 敎育的, 法的, 行政的인 방책은 물론 大衆의 이해를 위한 弘報手段등 광범위한 뒷바침이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문제는 다음 연사이신 정광모선생에게서 듣기로 하고 나는 우리들 自體로서 해야될 일 즉 看護協會가 밀고 나가야 될 몇가지 시급한 일과 여기에 호응해서 회원된 看護員 각 個人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일 만을 지적하고저 한다.

Ⅰ. 새 時代 看護實現을 爲한 基本姿勢

새것을 實現하기 爲하여 언제나 實現을 願하는 自身들이 갖추어야될 基本姿勢로 두가지를 말하고 지나가고 싶다.

첫째는 새것을 생각할때 헌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헌것에 대한 概念과 評價가 바로 되어야 겠다는 점이다. 새 時代의 看護를 設計할 때 오늘까지의 看護의 歷史와 傳統을 바로 인식하는 일이다. 過去를 바로 알고 評價하는 것이 現在의 선 자리를 바로 정립하고 판단하며 나아가서는 未來를, 새로운 時代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용감하게 設計하는 길이되겠다. 이말은 歷史와 傳統에 눌리고 左右되라는 말은 아니고 過去를 잘못 알고는 未來를 바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世界看護史를 통해서 한번 다시 바로 인식하고 지날 점은 看護事業은 初代基督敎時代 오랜 中世紀를 거쳐서 現代에 이르러 명실공히 專門看護職에 基盤을 닦기까지 社會奉仕 기능으로 發展해 왔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역시 看護는 社會奉仕기능임에 틀림없다. 다만 옛날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오늘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하며 옛날에는 직접적 대상이 個人에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은 地域社會와 大集團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社會福祉, 集團厚生 방법들을 실천할때 개개인의 生命과 福祉를 무시한다든가 혹은 건너 뛸 수는 없는 것이다.

〈협회는 일할분야를 더 개척해주고 회원 각자는 여러면으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설명하는 필자〉

바로 이러한 절실한 목적을 달성코저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韓國看護職도 專門職化되었고, 높은 교육을 통해서 哲學의 정립과 科學的知識과, 技術의 연마가 필요했으며 現代에와서는 社會的 變化에 호응해서 제도적인 개혁과 경제적인 뒷바침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歷史를 인식하지 못하고는 이 시점에서 왜 看護員은 社會的 變化에 민감해야 되며 왜 새 時代 看護가 필요한지 바로 생각하기 어렵다.

물째로는 새 時代를 향한 줄은 看護와 나 자신 개인과의 직결문제이다. 우리는 방금 홍여신 선생의 새 時代 看護에 대한 이념을 들었다. 오늘의 인류가 오늘의 한국민이 그러한 看護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바람직한 看護도 看護員 각개인과 결부될때 의의가 생기고 더구나 看護員을 등하지 않는 實現방안은 세울 수 없기때문이다.

學說이나 理論만이 아닌 專門職에 있어서 專門職에 속한 사람들이 이념과 방안을 자기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社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福祉와는 역시 유리된 說明이나 主張에 그칠 것이다.

1965년 英國首相 Winston Churchhill의 장례식에서 Elizabeth여왕은 "처칠힐이 가는것이 아니라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위대한 사람은 역사와 더불어 가기도 하며 새로운 역사는 개인들에 의해서 위대하게 올 수도 있고 부끄럽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看護指導者 Claire Dennison이 "看護의 질은 看護하는 사람의 질에 달렸다"고 한 말은 실시된 看護의 질은 실시자인 看護員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 時代 看護의 實現方案"은 즉 새 時代를 사는 看護員의 生活方案이오 看護의 實踐方案인 것이다. 주인공인 看護員들의 결의와 행동없이는 각계 각층의 후원과 협조도 크게 효과가 없으니 주인공들의 역할이 적극적일 때 각계 각층의 참여와 협조는 활발해질 수도 있다.

Ⅱ. 具體的인 實現方案

1) 협회의 50주년인 만큼 먼저 협회가 할일에 언급하겠다.

協會는 오늘까지 이룩된 기반과 傳統과 業績을 주축으로 하여 이제부터는 協會로서의 所信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겠다. 오랜 세월동안 累積된 숙제들, 걱정하고, 해야겠

다고 論議하고 주장하던 일들, 모순점이 많으며 將來가 염려된다고 慨嘆하고 있던 일들, 우리생각은 꼭 이래야 되겠는데 行政的으로 풀리지 못한 일들을 이제부터는 예리하게 파헤치고 整理해서 새 시대를 향하는 拍力과 果斷性을 위하여 단결하고 연구하고 밀고 나가야 될줄 안다.

그중에서도 다음 몇가지는 時急하게 着手되어야 바람직한 새 시대가 올 것만 같다.

(가) 看護職의 專門職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일

專門看護員의 資格, 權限과 義務(機能)를 具體的으로 成文化해서 내외에 宣布하고 이해시키는 일이다. 이 작업의 一環으로 특히 의사의 기능과의 관계 즉 補助職으로서 보다도 팀 槪念에 의한 協助者로서의 위치, 또는 看護補助職과의 교육적, 법적자격에 따르는 業務上 區別等을 포함해야 될 것이다.

이 일은 다른 機關이나 團體에서는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원치않는 경우도 있으나 간호원은 물론 醫療, 敎育, 行政, 司法 및 言論 각 분야를 위시하여 社會指導者들이 다 알아야 될 일이다. 간호직에 대한 개념이 바로되지 않고는 간호법은 물론 간호직을 중심한 어떠한 일도 바로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國家的 損失이기 때문이다.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못하고 있는 점들을 포함해서 推進해야 될 이 작업을 위하여 協會의 敎育部, 業務部, 出版部, 涉外公報部등이 總動員해야 될줄안다. 豫算이 必要하며 예산이 부족함으로 分科委員 개인들의 시간 提供도 覺悟해야 겠다.

(나) 無看護村 解消를 위한 캠페인을 벌려야겠다.

우리나라 풍토에서 無醫村이란 무의촌이지 無看護村이란 무엇이냐고 하겠으나 무의촌 解決은 의사들이 나서야겠고 無看護村 解決은 간호원들이 나서야 되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農漁村에는 의사들 일 보다도 간호원의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法的, 行政的 準備이 앞서야 되겠는고로 協會가 그 구체적인 方案을 연구 樹立해야겠다.

職給引上과 待遇改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우개선을 先行시키려고 建議도 많이 하고 努力도 많이 했다. 이제는 그 노력과 同時에, 아니 그보다 앞서서 먼저 간호원들이 地域社會에 가서 일하도록 協會에서는 自發的인 움직임을 벌려야겠다. 일하면서 대우개선을 외쳐야겠다.

無條件 義務制나 動員制를 提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國家나 國民에 대한 책임을 각자 받은 惠澤과 分數대로 혹은 段階的으로 혹은 部分的으로라도 履行하도록 率先해야 될 때가 온듯하다. 어려운 일이지만 협會로서는 自律的인 對案을 마련하는데 뜻과 힘을 모아야 될 줄 안다.

(다) 看護員들이 나가서 일할 분야를 더 開拓하고 擴大해야겠다.

1969년도 U.N.統計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人口比例한 病床數가 160개국 조사에 아직도 150位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病院이 늘어도 몇몇 큰 도시뿐이고 그나마 인구의 增加와 간호학생 定員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地方에는 既存병원시설도 충분히 활용 못되고 있다.

매년 3,000여명식 輩出될 간호원들이 다 어데 가서 일할 것인가? 예방간호나 지역사회간호도 理念은 좋은데 가서 일할 자리가 마련되어야겠다. 法制, 行政面에 積極的으로 反映해서 郡保

健所. 面보건소등에는 所長職도 간호원이 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개선이 着手되어야 겠다.

간호교육의 水準이 높아지고 내용이 質適圖해 졌으며 硏究過程등도 있음으로 一定期間 특수 오리엔테이션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자격을 준비토록 해야되겠다. 一時에 全國的으로 實施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法制度가 생겨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몰고가야 될 것이다.

그외에도 學校保健, 産業保健, 母子保健 또한 앞으로 실시될 醫療保險등 간호원의 참여와 일자리는 제도적으로 확장되어야 될줄안다.

협회는 이 모든 일에 結果的이고 消極的이고 被動的인 方法에서 計劃的이고 적극적이고 能動的인 방법으로 딛고 나가기 위하여 더욱 단결해야 되겠다.

2) 會員 個人이 할 일

(가) 각개인은 여러면으로 實力을 길러야겠다

"福祉국가를 건설하려면 과거 10年以上으로 오는 10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정희섭박사는 어저께 主題講演에서 말씀하셨다. 간호원들은 오는 10년간 머리를 싸매고 實力을 기르라고 하고 싶다. 제도적인 水準向上과 개인의 실력과는 늘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專攻에, 敎養에, 語學에 또는 一般 常識에 제을 많이 보고 실력을 길러야겠다. 실력 없으면 주어진 일도 빼앗기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나) 社會正義에 透徹하고 동시에 社會變化過程에 敏感해야겠다.

看板이나 免許만을 위한 간호학보다는 복지사회 건설에 必要不可缺한 간호업무의 價値觀 確立이 앞서야겠다. (說明 省略)

(다) 地域社會를 위한 果敢한 參與와 投身이 있어야겠다.

농어촌의 狀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곳의 無知와 不潔과 疾病을 덜기 위하여는 戰爭터에 나가는 心情으로라도 自願 솔선해야겠다. 그렇다고 오늘의 韓國農村이 그렇게 無知하고 文化와 杜絶된 狀態도 아니며 또 젊은날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海外移民을 꿈꾸는 젊은 간호원들이 짧은 1년간이라도 祖國의 鄕土에서 經驗해 보고 떠나가는 것은 어떠할까? 어쩌면 앞으로 내 동생, 내 男便, 내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구하려면 오늘의 여성들이 우리 향토를 위하여 미리 수고를 하는 것이 적은 도움이라도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敵과 싸우고 있다. 문명의 적. 健康의 적. 科學的 생활의 적들이다. 아직까지 一線은 男子들이 지킨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一線에는 女子들 특히 간호원들이 솔선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간호협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方案을 내걸고 현적, 행정적 뒷바침을 서둘러도 회원각자의 呼應과 參與없이는 成功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세계간호사를 참고한 다음 사실을 들고저 한다.

「한국 간호원들은 미국 영국등을 가리켜 간호원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나라가 되어서 일하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간호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간호원 자신들의 힘이 무엇보다도 컸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아야겠다.

1898년 미서전쟁(Spanish-AmericanWar)이 일어났다. 미국간호협회는 그 보다 겨우 2년전인 1896년에 조직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을 위하여 단결하였다. 미국의 각 신문들이 전쟁이 불가피하겠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자 미국 육군과 해군에는 간호원의 입대원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서전쟁은 불과 9개월만에 끝났다. 그러나 그 동안 1,600명의 미국 간호원들이 자원해서 봉사했으며 그중 10명의 희생자가 났다. 간호원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쟁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 간호사업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국가와 국민들은 간호원을 존경하게 되었다.

세계 제 1차대전 때 이야기를 살펴보자.

1917년 4월 9일 Woodrow Wilson 미국 대통령은 독일과 그 연방국에 대한 선전포고에 서명하였다.

그로부터 3주간 후 미국의 간호단체들은 Philadelphia에서 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우리는 국가가 우리들을 요구할 때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시민들을 위해서나 육군병원에서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의 증진 보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정에서나 전쟁터에서나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기로 서약합니다"라는 뜻의 엄숙한 서약이었다.

일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전쟁이 선포된지 6주 내에 일반 장병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원들도 "전쟁이 그치지않는 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서약한 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War to end war)을 위하여 전지로 향하였다.

한국동란중의 16개 우방국 간호원들의 활동이나 월남전쟁에서의 한국군 간호장교들 및 민간 간호원들의 활동이 고르는 사이에 간호사업을 퍽이나 많이 인식시켰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 ◇ ◇

간호학관계 석사 여러분에게

귀하의 연구노력하신 玉稿를 여러분의 후배를 위하여 또한 간호학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협회에 비치하여 항상 참고자료가 되도록 2본씩 납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분은 1부라도 꼭 기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